

지역 소식통

부안군,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전개

부안군은 개학을 맞아 지난 12일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부안읍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군(교육청소년과)과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안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본격적인 개학을 맞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접근·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편의점과 일반음식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 및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점검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에 대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는 등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우수기관' 수상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 중 세정분야 전반에 걸쳐 업무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율, 세정 운영 전반 등 13개 분야 22개 지표로 가지고 평가한다.

시는 지난해 대비 지방세 징수율 평점이 현저히 향상돼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돼 인센티브로 8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시민들의 높은 납세 의식과 지방세정 연차화를 통한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지방세정 제도개선 건의 등 직원들의 노력도 높게 평가 받았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은 열심히 일하는 세무공무원들의 노력과, 어려운 시기에 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시민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에서 지정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농장.

<사진=정읍시청 제공>

정읍,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가축 사육 환경 개선 및 축산 냄새 저감 실천, 농가 지도 박차

정읍시는 가축 사육 환경 개선과 축산 냄새 저감 실천을 위해 많은 축산 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시에는 13일 기준 159개소가 지정돼 있다.

깨끗한 축산 농장은 △가축의 사육 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수

변 환경과의 조화 등 13개 항목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이면 지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된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다.

깨끗한농장으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현판이 배부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축산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 시 우선 선정과 가점이 주

어진다.

향후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년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환경 개선 교육 이수 등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인증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등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므로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실' 운영

고창군 문화터미널내

고창군이 민·관 협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실'을 운영해 지역 내 복지서비스의 질을 크게 높이고 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5인(복지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정신건강복지센터, 로컬잡센터)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상담실이 연말까지 고창군 문화터미널내에서 진행중이다.

복지, 보건, 정신건강,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창 문화터미널 상담실은 정통시장 장날에 맞춰 매월 첫째주 3일에 진행되며, 휴일인 경우에는 8일로 변경되어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복지상담실이 연말까지 고창군 문화터미널내에서 진행중이다.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실행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 고창군의 이번 프로젝트는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주거급여 수급자 삶의 질 향상

정읍시-나전북지역본부,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 위·수탁 협약'

정읍시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섰다.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와 '2024년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이란, 주거급여 대상자 중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중보수(창호·단열), 대보수(지붕·육실·주방)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범위별 최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250가구(긴급보수 포함)를 대상으로 선정해 총 15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으로, 주거급여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취약계층 응급차량 이용경비 지원

고창군이 의료취약계층 보호와 응급환자의 안전과 생존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응급차량 이용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아·청소년(0~18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해당된다. 응급환자로 고창지역 의료기관에서 전북도내 및 광주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고창군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검토과정을 거쳐 익월 15일까지 거리별 최대 15만원의 이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및 기타 사항은 보건소 의약관리팀(560-8723)으로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골든타임 유지로 국민의 생명 안전성 보장과 응급의료서비스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정읍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6,532대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3억1,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천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자가차량이다.

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며 해당 기간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CD/ATM기, 인터넷지급, 위택스 사이트)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된다.

3월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1·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경찰서, 어르신 대상 보행자 교통안전 홍보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는 고창을 경도당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농기계 운행과 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경도당을 방문해 야간에 밝은 옷 입고 보행하기, 이륜차 안전

모 착용 등에 대해 교육을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륜차, 농기계, 전동 휠체어 운행 시 주의사항 및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이륜차 안전모 및 야광지팡이를 전달하면서 어르신들과 교통안전에 대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